

세계 정유산업 현황과 전망

1. 머리말

지난 해 세계石油수요가 5年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美国,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대다수 정유회사들은 損失을 입었다.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의 精製能力이 과잉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自由世界の 정제능력은 1983년에 2.5백만b/d 감축된데 이어 1984년에도 약 1.6백만b/d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4년 현재 자유세계의 정제능력은 수요를 2.2% 초과한 57.3백만b/d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정유회사들의 손실은 필연적인 것이며, 따라서 OPEC제국의 下流部門 진출과 함께 石油소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비효율적인 정유공장들은 계속 폐쇄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다음에서 지난해 세계의 정유회사들이 손실을 입게된 배경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본다.

2. 製品價格의 변동

제품가격의 변동과 함께 製品別 가격차가 축소되어 정유회사들은 타격을 받았다. 이의 주요 원인은 英國의 석탄파업이다. 이 파업으로 인해 30~50만b/d의 燃料油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이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휘발유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로테르담 現物市場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고급휘발유와 燃料油의 가격차는 1983년 6월 151달러에서 1984년 6월에는 95달러로, 그리고 금년초에는 47달러로 좁혀졌다. 高度化 精製施設(C-

製品價格 비교¹⁾

(單位: \$/t)

	高級揮發油 (A)	가스오일 (B)	重質燃料油 (C)	價格差 (A-C)
1983. 6	310	244	159	151
1984. 1	261	248	175	86
6	272	-	177	95
1985. 1	231	236	184	47
6 ²⁾	288	217	133	155

註: 1) 로테르담 現物시장 가격

2) 에너지 동향 資料

〈資料〉 Oil & Energy Trend, Energy Economist

racker)의 운영비 및 財務費를 감안할 때 이들의 가격차가 최소한 100달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3. 달러貨의 強勢와 原油價格 상승

지난 해 정유회사들이 損失을 입게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달러貨 강세로 인한 原油價 상승을 지적할 수 있다. 금년 2월부터 OPEC이 Arab Light의 公式를 3.4% 인하했지만 실제 유럽제국의 自國통화를 기준으로 한 2월 가격은 7% 포인트 상승하였다. 또 최고시세를 보이던 1981년 이후 世界油價는 25% 포인트 떨어졌지만 실질 코스트는 7% 포인트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Energy Economist 最近號(1985/6)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 1월 중 Brent 現물가격이 달러화 기준 9.3% 포인트 떨어졌으나, 서방수입국들

의 自國通貨기준 수입가격은 오히려 2.4% 포인트 상승하였다.

4. 原油價格差의 불확실성

지난 해 原油가격이 변동스럽게 등락을 거듭함에 따라 정유회사들은 타격을 받았다. 봄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가을에는 다시 약세를 보이는 등 現物油價는 예기치 않은 변동을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油種間 현물가격차는 公式價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一例로 Arab Light와 Heavy의 公式價格差는 배럴당 3달러였으나, 현물가격차는 1달러에 불과하였으며, 크래킹시설의 파잉상태로 인해 英國의 파업이 종식될 때까지는 Heavy油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5. OPEC의 精製能力 증대

지난 몇년 동안에 있었던 석유업계의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OPEC의 下流部門 진출이라 할 수

있다. 中東산유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石油製品을 수출하여 石油輸入을 늘리는 동시에 제품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原油價格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지난 수년동안 막대한 자금을 정유산업에 투자하여 왔다. 이제 OPEC 產油國들이 수출용 정유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수출을 개시함으로써 세계 정유업계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리비아의 Ras Lanuff 및 사우디의 Yanbu의 수출용 정유공장이 가동에 들어간데 이어, 사우디의 Jubail 정유공장도 최근 수출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유공장의 가동과 함께 현재 약 2.2 백만b/d인 OPEC의 제품수출 능력은 1988년까지 2 백만b/d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O APEC/ENI의 연구보고서에서 전망한 OAPEC의 정제능력을 다음에서 제시한다.

세계정유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정제능력의 증대에 대해서 OPEC은 가격과 공급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그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근착 MEES誌에 게재된 쿠웨이트 國際石油會社(Kuwait Petroleum Intenational Limited) 社長인 H. Sultan

石油製品의 정제마진¹⁾

(單位: \$ / B)

	美 國	유 럽	日 本	안 부 ²⁾	쥬 베 일 ²⁾	쿠웨이트 ²⁾
製 品 價 值	30.74	27.42	26.67	32.50	32.31	33.98
原 油 코 스투	28.77	28.31	28.50	29.00	29.00	27.30
差 異	1.97	-0.89	-1.83	3.50	3.31	6.68
運 營 및 수송비 ¹⁾	2.33	1.99	1.93	1.54	1.54	1.54
정 제 마 진(A)	-0.36	-2.88	-3.76	1.96	1.77	5.14
製 品 수 송 비(B)						
美 國				2.30	3.12	3.12
유 럽				1.81	2.62	2.62
日 本				2.14	1.33	1.33
A - B						
美 國				-0.34	-1.35	2.02
유 럽				0.15	-0.85	2.52
日 本				-0.18	0.44	3.81

註: 1) 1984. 9 製品價格基準

2) Arab Light가 精製原料임, 가격 및 수출 믹스의 변동에 따라 제품가치 변동 가능.

3) 현재의 계획대로 정유공장이 건설된다고 가정.

4) 美國의 원유수송비는 원유코스트에 포함됨. 사우디 및 쿠웨이트의 원유수송비는 없음.

(資料) Middle East Economic Survey(1985. 7. 8)

OAPEC의 精製能力 현황 및 전망

(單位: 천b/d)

	1980	1985	1990	1995
設計容量	3,187	4,721	5,596	6,420
生産産	2,354	3,986	4,757	4,849
消費費	1,245	1,924	2,615	3,355

〈資料〉 Oil & Gas Journal(1985. 6. 17)

씨의 글을 이용하여 그 근거를 밝혀본다.

첫째, 지난 수년동안 생산에서 시작하여 소비지에서 종료되는 석유업계의 활동은 점차 分化되어 왔다. 이러한 石油市場의 分化와 함께 시장의 불안정성이 유발되었는데, OPEC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둘째, OPEC이 하류부문에 진출함으로써 既存의 회사가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수한 고용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셋째, OPEC이 최종소비자시장에 進入함으로써 석유업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 및 상호이해의 바탕이 될 것이다.

네째, 60년대와 70년대를 대비해서 구축된 석유업계는 이제 수요감소라는 새로운 80년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업계의 합리화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때에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表〉와 같은 精製마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 동향〉

□ 産油国動向 □

非OPEC原油의 증가와 OPEC의 고민

非 OPEC 국가의 原油생산 증가추세가 작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OPEC에 주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自由世界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유회사가 연이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非OPEC 국가의 産油量은 작년보다 90만b/d 증가 하였으니 OPEC 국가로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非OPEC은 120만b/d의 생산량 증대를 기록하였으나 소비량의 증가가 2/3 수준인 80만b/d에 달하여, OPEC에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

非OPEC의 생산량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은 멕시코와 이집트 등 몇몇 産油国이 原油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油價하락으로 인하여 이러한 장애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85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非OPEC의 판매손실을 補填해 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또한 하반기에는 노르웨이의 Statfiord'c』 등과 같은 주요 油田의 생산개시에 힘입어 非OPEC의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非OPEC 産油国이 장래 계획수립에 있어서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은 시장상황이 얼마만큼 생산량에 반영되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實例로 85년도의 생산량 증가분을 70만b/d로 낮게 예상한 측이 있는 반면 120만b/d 増産이 가능하다고 본 업계소식통도 있었다.

OPEC 국가들은 非OPEC 産油量의 증가세 둔화에 일말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 OPEC을 궁지에 빠뜨리고 있다. 업계소식통들은 86년도 非OPEC의 생산량 증가가 60만b/d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5년 非OPEC의 産油量은 OPEC보다 7백만b/d이 많으며 NGL을 포함하면 850만b/d가 더 많다.

非OPEC에서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의 하나가 美国이라는 것이 특기할만한데, 그것은 알래스카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그 밖에 눈에 띄게 증가한 나라는 英國, 노르웨이, 브라질, 印度 등이다. 泰國, 파키스탄, 덴마크, 프랑스 등도 상당히 증가하리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80년대말에 있어서는 콜롬비아, 시리아, 北예멘이 주목을 끌 가능성이 짙다. 西아프리카 諸国은 85년에는 잠잠하였으나 상승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中共은 향후 5년 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나 대개 非OPEC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85년 상반기에 中共의 수출량은 45% 증가하였으며, 東歐共産圈의 수출량 또한 1/4분기의 하락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OPEC을 궁지로 모는데 一助할 것이다. *

(PIW 7월 22일)